

##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90장** ..... **다같이**

1. 주 예수 내가 아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2.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맘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3.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 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 능히 끊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 도** ..... **가족 중**

**성경봉독** ..... **고린도후서 1:12-14** ..... **인도자**

- 12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 13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 14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설 교** ..... **“우리의 기쁨”** .....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 **설교자/다같이**

\* 설교자의 대표기도 또는 다음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나라와 개인이 회복하도록
- 2)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우리의 기쁨”

(고린도후서 1:12-14)

본 설교는 요한 웨슬리의 표준설교 중 11번째인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를 바탕으로 했다. 본 단락에서 바울은 자기 여행 계획이나 말씀 사역이 육체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음을 자기 양심을 걸고 말한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기 때문에 떳떳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웨슬리가 사용한 흠정역성경(KJV)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웨슬리는 12절을 바탕으로 ‘기독교인의 참된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규명하려 한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고 했다.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비결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뿐이다. ‘기쁨’을 얻는 방법이 기도라면, 기독교적인 기쁨의 내용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웨슬리는 먼저 “양심”(12절)이라는 단어를 집중 조명한다. 양심(良心)은 헬라어로 ‘쉴레이테시스’로서 ‘함께 보는 것’을 의미한다. 양심은 혼자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신학적으로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영혼에 심어 놓으신 것으로 자신의 기질, 생각, 말, 행위의 선악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신에 대한 내적인 자각 장치다. 양심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이다. 하지만 문화나 종교나 교육에 따라 양심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양심이 타락하여 화인을 맞기도 한다. 따라서 양심의 온전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참된 이해가 필요하며, 자신의 말과 행위와 표준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하며, 일치 여부에 대한 내적인 자각이 필요하다. ▶바울은 12절에서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①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②거룩함과 진실함을 갖고 ③세상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첫 번째로 양심이 우리가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증언하면 기쁨이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하면 기쁨이 된다. 거룩하심은 다른 말로 ‘단순함’인데 마음과 생활의 단순함이 의미한다. 진실함은 곧 솔직함, 의도의 순수성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이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에게 참된 기쁨이 있게 된다. ▶나에게도 참된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 것,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 등이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데서 오는 기쁨이어야 한다. ▶기쁨은 곧 자랑으로 바뀌어도 된다. 바울도 예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나중에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리스도를 얻는데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그의 진짜 자랑거리가 된 것이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겼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모로 판단했다. 바울은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는 날에는 모든 것이 밝혀져 완전히 알게 될 것을 언급하면서, 그날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자랑이 되고, 바울과 그 일행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랑이 될 것을 밝히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역의 열매를 상호 간에 자랑으로 삼은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진정한 자랑거리다.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기쁨과 자랑을 찾으라. 주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을 갖기를 기원한다.